

한국지방신문협회 공동 칼럼

光日春秋



박재희 석천학당 원장

“뒤야 사칭물이 올라갑니다.” 방송국 PD가 인문 고전 강의를 하던 필자에게 자주 하던 말이다. 처음 들으면, 상식으로 설명이 안 되는, 괴상하고 기이한 강의라야 사람들의 이목을 집중시켜 시청률을 높일 수 있다는 마케팅 논리다. 삭발을 하든, 기발한 복장을 하든, 기괴한 목소리로 소리를 지르든, 신비적이고 충동적인 논리로 말하든, 이 어느 한 가지라도 있어야 시청률이 올라갈 수 있다는 나름 대중을 분석하고 있다는 그 분야 전문가의 조언이다. 한마디로 평범하고 정상적인 언변으로는 사람들의 이목을 끌 수 없으니 이상하고 특별한 함으로 보여줘야 한다는 충고였다.

그러고 보니 세상이 온통 괴상하고 이상하고 특별한 것으로 가득하다. 먹는 즉시 효력이 발생하는 건강식품, 세상에서 하나밖에 없는 특별한 상품, 신비하고 오묘한 효능은 그런대로 들어 줄만 하다. ‘마귀와 사탄이 들렸어 그랬다.’ (怪) ‘내 능력은 사람의 생사와 국가의 운명을 주관한다.’ (力) ‘혼란의 세상이 다가왔다.’

괴력난신(怪力亂神) 대 상덕치인(常德治人)

(亂) ‘하늘에서 별을 내릴 것이다.’ (神) 이 정도 되면 괴력난신(怪力亂神) 마케팅으로 자신의 배를 채우고, 권력을 만들고, 왕국을 만드는 선동가이며 사기꾼이다. 예수님, 부처님 입장에서 보면 신을 모욕하고 능멸한 자로서 벌 받아야 할 대상이며 신성(神性)을 가장한 흑세무민(感世無民)의 목회자이다.

공자는 괴력난신을 경계하고 멀리하였다. 공자가 살던 춘추전국시대도 튀어야 팔리던 시대였다. 불확실성의 시대에 정상적이고 평범한 논리는 수요자인 귀족의 마음을 사로잡을 수가 없었다. 당시 왕들과 귀족들은 신들의 이야기와 비약의 논리를 선호하였다. 당대의 백가(百家)들은 온갖 특별하고 신비한 이야기로 유세하여 자신의 이익을 채우려 하였다. 공자 역시 귀족들의 지지를 받아 정치에 참여하여 자신의 정치적 목표를 달성하고 싶었지만, 괴력난신으로 접근하는 것은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방법이었다. “세상을 속여서(欺世) 이름을 도둑질하지 않겠다(盜名).” 비록 14년 동안 유랑의 길을 걸으며 세상이 알아주지 않는(邈世) 고난의 삶을 살았지만 결코 후회하지 않았던 공자의 선택이 오늘날까지 공자를 있게 한 이유다. 괴력난신으로 이름을 날리고, 왕국을 세우고, 권력을 얻었던 승려·마술사·목회자·차려사·신비주의자들은 봄날에 녹는 잔설(殘雪)처럼 역사에서 흔적도 없이 사라져 버렸다.

괴력난신에 대항하는 말이 상덕치인(常德治人)이

다. 상식(常)은 재미없고, 인격(德)은 평범하고, 질서(治)는 따분하고, 인간(人)은 흔하다. 그래서 괴상(怪)하고, 능력(力)있고, 혼란(亂)하고, 신비(神)한 것에 항상 밀린다. 그러나 결과는 시간이 지나면 역전된다. 가장 상식적인 것이 가장 정당한 것이다. 물은 맛이 없는 무미(無味)의 맛이나 영원히 질리지 않는다. 달콤하고 새콤한 것은 아무리 혀를 유혹하고 마음을 사로잡아도 그때뿐이다. 어머니는 평범했지만 가장 뱃속 깊이 새겨진 인생의 추억이었고, 공기는 흔했지만 생명의 근원이 되어 나를 숨 쉬게 한다. 우리가 당연하고 흔하다고 생각하는 것이 드러나지 않는 위대함이고 특별함이다. 하늘에는 솔개가 날고, 연못에는 물고기가 뛰고, 들에는 말이 달리는 것이 상식이다. 그 상식이 자연이고, 자연은 영원하다. 가장 평범한 것이 가장 영원한 것이다.

신을 빌려 자신의 권력을 행사하고, 혼란을 이용해 이기적인 욕망을 채우는 목회자들이 사회에서 활개를 치고 있다. 마음이 허전하고 갈 길 몰라 하는 사람들은 황당하고 신비적인 이야기에 기대어 자신의 빈 마음을 채우고 있다. 비약은 마약처럼 정도(正道)를 마취시켜 사회를 비정상적으로 변모시키고 있다. 괴력난신(怪力亂神)이 상덕치인(常德治人)을 위협하고 있는 시대가 안타깝다. 내세가 아닌 현재에서, 미래가 아닌 지금에 집중하며, 가장 평범한 것이 가장 위대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가슴에 새긴다.

종교칼럼

사랑은 죽음보다 강하고



최현열 광주 은교회 담임목사

신명 훈련을 마치고 부대 배치를 받은 지 얼마 지나지 않았을 때 부대의 창설일을 맞아 체육대회가 열렸다. 우리 부대는 우승했고 돼지 한 마리를 부상으로 받았다. 그 기념으로 만찬을 하는 자리에서 부대장은 막내를 불렀고 그제 바로 나왔다. 나는 관등 성명을 크게 외치며 뛰어나갔고 부대장은 술병을 들고 기분 좋은 얼굴로 나에게 따라 주려고 하였다. 그 순간 나는 군중병이라며 저절로 의사를 보였다. 갑자기 분위기는 험악해졌고 수십명의 선임병들의 눈에서는 불꽃이 이글거렸다. 소리 없는 아우성처럼 잔을 들어 술을 받으라는 선임병들의 목소리가 귀에 들리는 듯 했다. 그런 압박을 나는 견딜 수 없어 잔을 들어 부대장이 따라준 술을 받아 입에 넣었다. 그리고 내 자리로 돌아와 그 술을 뱉어 내었다. 사실 마시지 않고 입에 머금고만 있었다. 그 모습을 유심히 보던 선임병들은 지레롭게 행동했다. 그 칭찬 하기도 했고 이등병 주체에 대견하다는 듯한 눈빛을 보였다. 하지만 그 씩씩한 기억은 30년이 지난 지금도 잊혀지지 않는다.

나는 신앙과 죽음의 갈림길에서 죽음을 맞이하며 신앙을 선택할 수 있을까. 한국 기독교사에서 일사 각오

의 신앙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나라를 사랑한 주기철 목사를 기억한다. 신사 침해를 거부하고 옥고를 치루며 그 많은 고문과 회유, 협박에도 굴하지 않고 그 신앙을 지켰다. 그의 이러한 용기도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신앙의 힘이 있었기에 가능했던 것이라 하겠다. 죽음이라는 것에는 크게 두 가지의 큰 힘이 있는 듯 하다. 죽음을 각오하면 오히려 두려움을 극복하고 신명을 지킬 수 있는 용기와 힘이 생긴다. 또 한 가지는 죽음을 의지하게 되면 자유로워 질 수 있다는 막연한 기대를 갖게 하는 무서운 힘이 있다.

슈퍼맨으로 잘 알려진 영화 가운데 인간미를 잘 그려낸 ‘맨 오브 스틸’이라는 영화에서 잊혀지지 않는 한 장면이 있다. 장성한 주인공은 인간이 상상할 수 없는 엄청난 힘과 초능력이 있다는 것을 자각하고 있었다. 강한 토네이도에 의해 도로의 많은 차들조차 낙엽처럼 하늘로 치솟는 그 속에서 그의 아버지는 죽음의 문턱에서조차 초능력자 아들이 도우러 오는 것을 막는다. 자신을 구하러 오려는 아들을 바라보며 절대로 오지 말라는 아버지의 눈빛과 손짓하는 장면은 위기의 그 순간에서도 슈퍼맨인 아들이 인간들의 편견 속에서 고통없이 살아가길 바라는 부성애를 잘 담아 낸 거 같다. 순간 토네이도에 휩쓸려 죽고 마는 아버지, 그런 모습을 지켜보고 있어야만 하는 아들 슈퍼맨! ‘사람들은 너의 능력을 보면 분명 너를 두려워 할거야.’ 아버지의 뜻을 받아 들였기에 슈퍼맨은 아버지를 구할 힘이 있음에도 그저 울부짖을 수밖에 없었다.

예수가 살았던 시대는 로마가 기독교를 잡고 있었다. 예수의 명성과 능력은 그 시대의 많은 사람들에게

위험이 되었고, 그의 능력은 두려움이 되었다. 비웃으며 조롱하는 많은 사람들에게 당장이라도 권능을 보일 수 있었지만 그는 연약한 인간의 모습으로 죽음의 길을 갔다. 목욕히 어린양처럼 십자가를 지고 죄인처럼 못 박히고 말았다. 그 사랑의 열정이, 구원의 열심이 고난의 십자가를 지게 하였고 죽음을 맞이함에 있어 흔들리지 않게 하였다. 죽음을 각오한 사람에게서 나올 수 있는 강한 힘, 예수는 어떠한가. 죽음을 맞이하였고 마침내 죽음을 이겨 버렸다. 그것을 가리켜 ‘사랑 권세를 이겼다’라고 표현하며 신학자들은 예수의 부활을 ‘죽음을 죽인 사건이다’라고 말한다.

구약성경의 아가서 8장 6절에 “사랑은 죽음같이 강하고”라는 구절이 있다. 깊이 생각해 보면 이 세상에서 가장 강한 것이 죽음이라는 전제를 하고 있다. 그리고 그것과 맞설 수 있는 것은 오직 사랑뿐이라는 것이다. 예수는 요한복음에서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큰 사랑이 없나니” 말하고 또한 “나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않고 친구라 하였노니”라고 말씀하셨다. 즉, 예수는 친구인 우리를 위하여 생명을 주심으로 큰 사랑을 보이셨다. 세상의 모든 사람을 두렵게 하며 지배하던 죽음의 힘을 사랑의 힘으로 넘어섰고 또한 승리하였다.

그리스도인들의 부활절은 죽었던 사람이 다시 살아난 놀라움을 가리는 절기가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는 것이다. 이것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믿음이리라 하겠다.

社說

지산IC 진출로 변경 ‘혈세 낭비’ 반면교사 삼아야

광주시가 교통사고 위험이 높은 제2 순환도로 지산IC 좌측 진출로를 폐쇄하지 않고 주행 차로로 활용하는 방안을 내놓았다. 대신 보편적인 우측 진출입이 가능하도록 새로운 진출입 도로를 만들기로 했다.

강기정 광주시장은 그제 지산IC에서 현장 설명회를 열어 산수터널과 지산터널 사이 좌측 진출로 구간을 옹벽 조성하고 성토를 통해 기존 순환도로와 높이를 맞춰 세 개 차로에서 네 개 차로로 확장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이에 따라 1~3차로는 주행 차로, 맨 우측 4차로는 진출로로 사용하게 된다. 오른쪽으로 위치가 변경된 진출로는 터널과 거리를 늘려 시야-인식 반영을 높이고 길이(194m)보다 긴 215m를 확보하게 된다.

광주시는 1단계로 두암에서 소태 방향 진출로를 먼저 개설하고, 반대편인 소태에서 두암 방향 진입로 개설은 2단계로 추진할 예정이다. 새 방식은 좌측 진출로를 완전히 매몰하지 않고 90% 이상 다시 활용할 수 있으며, 이미 건설된 조선대학

교 사범대 진입도로와 연결해 교통체계를 효율화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고 광주시는 설명했다.

일단 터널과 이격 거리가 18m에 불과해 교통사고 위험도가 최대 14배나 높다는 진단을 받은 1차로상의 좌측 진출로를 폐쇄하지 않고 주행 차로로 이용할 수 있는 대안을 찾은 것은 다행스러운 일이다. 하지만 이미 77억 원의 공사비가 투입된 터다. 우측 진출로 개설에 49억 원 가량이 추가로 들어가는 만큼 혈세 낭비라는 비판을 피하기는 어렵다.

광주시는 이번 사례를 향후 행정의 반면교사로 삼아야 한다. 무엇보다 안전을 무시한 결정이 이뤄진 과정에 대한 철저한 감사를 통해 문제가 확인되면 엄중히 책임을 물어야 한다. 아울러 다시는 엉터리 행정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재발 방지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 기존 원충 녹지를 도로로 바꾸는 방안 등에 대해서도 우려가 제기되는 만큼 안전을 최우선으로 보완해야 할 것이다.

발달장애인 가족 돌봄, 이젠 정부가 나서라

어제는 정부가 장애인의 사회 참여와 평등권 실현을 위해 제정한 ‘장애인의 날’이었다. 올해로 42주년을 맞았지만 중증 장애인과 발달 장애인을 두고 있는 가족들은 갈수록 힘든 돌봄 부담으로 여전히 고통을 받고 있다.

광주일보가 엮은 발달 장애 아들을 키우고 있는 어머니 서준경(57) 씨를 동행 취재한 결과, 24시간 돌봄으로 인해 일상이 무너져 있었다. 서 씨는 발달 장애를 지닌 20대 두 아들을 키우며 6년째 병원에서 투병 중인 남편을 대신해 생계를 맡고 있는 가정이다. 2급 장애를 가진 큰 아들은 초등학교 수준의 자능이지만 성격이 비교적 온화해 그룹웨어 돌봄 서비스를 받고 있다.

반면, 1급 장애인 둘째 아들은 자능이 다섯 살 정도로 고집이 세고 말도 잘 듣지 않아서 써가 감당하기 힘든 상태다. 평일에는 발달 장애인 주간보호센터에 다니고 있지만 이마저도 아들이 원하지 않을 때 많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서 씨는 자

활 청소 미화 일도 6년 전 그만뒀고, 돌봄으로 인한 스트레스로 우울증과 공황 장애를 겪고 있다.

문제는 현실적으로 장애인 돌봄이 나아질 기미가 없다는 것이다. 현행 복지 정책은 가족 중심주의로 일차적 돌봄 책임을 가족에게 부과하고 있어 가족 스스로 돌봄 부담을 떠안아야 하기 때문이다. 보건복지부 장애인 실태 조사에 따르면 2020년 기준 장애인 가구는 262만 2950 가구로 월평균 소득은 199만 원에 불과하다. 장애인 돌봄이 가족 중심으로 이뤄지면서 사회 활동 제약으로 취약 가구가 많아진 탓이다.

현재 광주시의 발달 장애인은 총 7871명으로 전체 장애인(7만 185명)의 11%에 달한다. 발달 장애인 돌봄이 더 이상 가족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얘기가. 따라서 발달 장애인 돌봄에 대한 가족의 부담을 완화하고 국가의 책임을 확대하는 등 사회적 지원망 구축을 서둘러야 할 것이다.

無等鼓

프랑스의 실존주의 철학자 장 폴 사르트르는 “인생은 B와 D 사이에 있는 C다.”고 말했다. 여기서 B는 탄생(birth)이며 D는 죽음(death), 그리고 C는 선택(choice)이다. 인생은 탄생과 죽음 사이 선택의 연속이라는 의미다.

우리는 일상에서 수많은 선택을 하면서 살아간다. 점심시간에 비빔밥을 먹을 것인지 짜장면을 먹을 것인지, 휴일에 등산을 할지 스포츠 경기를 보러 갈지도 선택의 영역이다. 입시와 취업, 결혼, 이사 그리고 취미, 모임, 쇼핑 등 삶의 대부분이 이 범주에서 벗어나지 않는 한해 민가가 왜곡될까 ‘짜장면을 먹을 걸’ 하고 후회도 하지만, 이것 또한 스스로 선택한 일이다. 이런 선택이 모여서 결국 한 사람의 인생이 된다.

일상의 선택에 정해진 운명이 끼어들 여지는 없다. 그래서 사르트르는 말한다. “인생에 선택적 의미란 없다. 인생에 의미를 부여하는 건 당신이고, 당신이 선택한 의미가 곧 인생의 가치다.” 그는 또 “실존은 본질에 앞서기 때문에 인간은 자신의 운명을 선택하고 창조한다. 타인이 아닌 자신의 욕

망에 따라 선택을 하고 그 선택에 책임을 지는 것이 인간의 삶”이라고 했다.

광주일보는 어제 창간 71주년 특집으로 ‘22대 총선 누가 뭐냐’를 다섯 개 지면에 편집했다. 국회의원 총선거를 1년 앞두고 광주·전남 18개 지역구별 출마 예정자를 소개해 독자들이 선택할 후보를 미리 살펴볼 수 있게 했다. 선거는 ‘민주주의의 꽃’이라 한다. 따라서 선거의 주체는 후보자가 아닌 유권자다. 그러나 광주·전남에서는 특정 정당의 지지세가 높아 정당 경선이 곧 본선이 되는 경우가 많다. 이는 유권자의 선택 기회를 제한해 민가가 왜곡될까

능성이 높다는 의미다. 정당의 후보 선출에서부터 본선까지 유권자의 관심과 참여가 필요한 이유가 여기에 있다.

고대 그리스의 철학자 플라톤은 “정치를 외면한 대가는 가장 저질스러운 인간들에게 지배당한다는 것이다”고 경고했다. 우리는 지금, 정치에 무관심하거나 방관하면 타인의 선택에 의해 내 삶이 어떻게 무너질 수 있는지를 아프게 경험하고 있는 중이다.

/유재관 편집담당1국장 jkyou@

기 고

5년 만에 여는 ‘강진 월출산 봄 소풍 축제’



서순철 강진군 부군수

중국의 사상이, 장자는 ‘인생을 소풍처럼 잘 놀다 가는 것’이라고 했다. 결코 꽃길만 걸을 수 없는 삶의 숙명을 두고, 역설적으로 이곳저곳 목적 없이 노닐며, 소풍을 즐기듯 여유롭게 살라고 한 것이리라.

긴 인생길에 눈부신 봄날 한때를 좋은 사람들과 함께 할 수 있는 강진의 ‘월출산 봄소풍 가는 날 축제’가 21일부터 23일까지 월출산 자락 아래, 강진다원 녹차밭 일원에서 열린다.

축제장을 호위무사처럼 둘러싸고 있는 월출산은 설악산, 주왕산과 함께 국내 3대 암산으로 손꼽히며, 호남정맥의 거대한 암류가 남해와 부딪히면서 솟아오른 돌산의 위용을 자랑한다.

33.3ha(약 10만 평)의 푸른 비단이 펼쳐진 녹차밭은 녹차의 대명사 아모레퍼시픽의 ‘오설록’에서 운영 하는 차밭으로, 큰 일교차와 맑은 안개가 녹차의 맛과 향을 풍부하게 키워 낸다.

월출산은 흔하디 흔한 영암에서 오르지만, 산의 형세는 강진 쪽을 바라보고 있어, 강진의 월출산이기도 하다. 월출산에서 가장 아름다운 계곡으로 꼽히는 ‘금릉 계

포대’도 오르는 길은 강진에서 시작된다.

축제의 주무대가 있는 곳이 바로 금릉 경포대 앞의 주차장 공간이다. 산의 정기와 녹차밭의 풍광이 어우러지는 그야말로 ‘봄의 핫 스팟’인 셈이다.

월출산 봄소풍 축제는 2017년에 처음 시작해, 2018년까지 2회에 걸쳐 개최되었다가, 올해 5년간의 공백을 깨고 다시 개최된다. 코로나로 인한 멈춤이 해제되며 조금씩 일상이 회복되고 있는 증거로, 그동안 미뤄왔던 만큼 풍성한 행사와 다양한 체험 거리가 관광객을 기다린다.

3개 분야에 34개의 체험과 놀이 행사가 준비되는 이번 축제 가운데 ‘어느 봄날의 브런치’는 녹차밭 일대에서 하염없이 봄을 즐길 수 있는 행사로, 간단한 브런치와 돛자리가 2인 기준으로 2만 원에 제공된다. 4월 22일과 23일, 양일간 진행되며 하루에 100세트가 선착순으로 사전 접수가 필요하다. 현재 토요일 예약은 완료된 상황이다.

차 소풍도 있다. 한없이 펼쳐진 녹차밭 한가운데서 펼쳐지는 다도 체험은 비우고 내려놓으며, 아무것도 하지 않을 자유를 선물하고, 수로 위에 술잔을 띄우고 그 술잔이 자기 앞에 올 때마다 시 한 수를 읊었던 풍류, ‘유상곡수연(流觴曲水宴)’이 백운동 원림에서 술 대신 차로 재연된다.

대형 녹차밭과 그 이름처럼 아름다운 ‘달빛 한옥마을’, 담양 소쇄원, 완도 부용동과 함께 호남 3대 정원이었던 ‘백운동 원림’ 등을 강진군 문화해설사의 생생한 설명을 들으며 걸어 보는 트레킹 코스도 ‘이가월기(이

야기가 가득한 월출산 기행)’이라는 이름으로 준비된다. 약 한 시간이 소요되며, 스탬프를 찍어 오면 강진 사랑 상품권 5000원을 받을 수 있다.

29개의 아름다운 한옥이 그림엽서처럼 펼쳐진 강진 달빛 한옥마을에서는 4월 22일 오후 4시, 사월의 달빛 콘서트를 열며, 축제 분위기를 한껏 달군다.

월출산 산행도 빼놓을 수 없다. 월출산 정상인 천황봉에서 인종산을 찍어 보면 해당 부스에서 상품권을 증정한다. 역시 선착순 100명이다.

축제는 즐기는 자의 것이며, 성공한 축제는 지역의 브랜드 파워를 높이고, 지역 경제를 견인한다. 하지만 축제의 호스트인 지역민의 자발적인 참여 없이는 외부 관광객 견인은 어불성설이다.

나아가 이번 월출산 봄소풍 축제도 ‘세계적 축제가 끊이지 않는 도시, 강진’의 매력을 널리 알리며, 4월 22일부터 10월 28일까지 매주 토요일마다 개최되는 ‘마랑 놀토 수산시장 축제’와 이어지는 ‘보은산 수국길 축제’(6월 30일~7월 2일)에도 더 많은 분들이 찾아와 주시길 바란다.

관광산업은 지방 소멸의 위기를 막을 수 있는 유일한 대책으로, 관광객의 대거 유입을 통해 인구가 늘어나는 소비 효과를 만들어 낼 수 있다.

봄이 점점 짧아지고 있다. ‘4월은 잔인한 달’이라는 T.S 엘리엇의 시처럼, 봄은 엄청난 생명력으로 모두를 깨워 놓고 순식간에 사라진다. 4월이 가기 전, 봄의 싹표 하나를 제대로 찍어 보면 어떨까, ‘강진 월출산 봄소풍 축제’에 여러분을 초대한다.

光 州 日 報		The Kwangju Ilbo	
회장·발행인 金汝松	논설실장 程厚植	편집총괄국장 崔宰豪	
1952년 4월 20일 創社 1980년 11월 29일 등록번호 광주지 1(일간)		우 61482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24	
대표전화 222-8111 / 220-0551(지사 지국(구독 신청 배달 안내)) 광고문의 062-227-9600			
편집국내선	(대표 FAX 222-4918)	경영지 원국	220-0515 문화사업국 220-0541
편집부 220-0649	문화부 220-0661	(FAX 222-8005)	(FAX 222-0195)
정치부 220-0652	예향부 220-0692	기획관리국 227-9600	업무국 220-0551
경제부 220-0663	사진부 220-0693	(FAX 222-0195)	(FAX 222-0195)
사회부 220-0642	체육부 220-0621	디자인실 220-0536	서울지사 02-773-9331
전남본부 220-0680			(FAX 02-773-9335)
*구독료 월정 10,000원 1부 500원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